



# 성결대학보

SUNGKYUL  
NEWSPAPER

## CONTENTS

대학이념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 교육목적 기독교적 인성과 세계시민 의식을 기반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

NO.392 2022. 10. 26. Wed

발행인 김상식 주간 김희선 간사 방미향 편집장 이서연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tel. 031-467-8243 https://www.sungkyul.ac.kr



2 보도  
모여봐요  
동페의 숲!



4 대학  
영-블러디드,  
영암축전



6 취업  
취·창업박람회



10 교양  
한글은  
민족의 표상이다,  
조선어학회

## 성결대학교, 60주년의 역사를 쓰다

본교가 개교 60주년을 맞아 금년 9월 15일(목) 기념관 5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진행했다. 행사는 총 3부로 나눠 1부 기념예배, 2부 기념식, 3부 축하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1부 기념예배는 박정수 신학대학원장의 인도로 시작됐다. 묵도 후 찬송가 310장을 함께 불렀으며 ▲기도 ▲성경봉독 ▲찬양 ▲설교 ▲축도 순으로 1부가 마무리됐다.

2부 기념식 사회는 윤민영 교학부총장이 맡았다. 개식사를 시작으로 개교 60주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영상부터 학교연혁소개, 개교60주년 비전 선포 순으로 행사가 이어졌다. 또한 김상식 총장과 박광일 이사장이 각각 기념사와 환영사를 했으며 강득구 국회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김경수 나사렛대학교 총장, 총동문회장 곽종원 목사가 자리를 빛내 축사를 했다. 이후에는 축하영상과

축가가 이어졌다.

축가 이후로는 수상이 진행됐는데 자랑스러운 성결인상은 ▲국회의원(시흥시) 문정복 ▲영화감독 김세인이 수상했으며 공로상은 ▲안양시장 최대호 ▲시냇가푸른나무교회 목사 신용백 ▲참좋은교회 목사 김원교 ▲신림제일교회 원로장로 서종로가 수상했다. 수상 후에는 교가제창을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기념식을 마쳤다.

김상식 총장은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개교 60주년을 맞아 비전 2030,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실무 인재 양성 대학을 중장기 발전 비전으로 설정했다.”며 뜻을 밝혔다.

글 - 박미경 기자 qkralrud0827@sungkyul.ac.kr  
사진 - 학보사 일동



또한 개교 60주년을 맞아 <영암 김응조> 창작 음악극이 지난 10월 13일(목)에 본교 기념관 5층 대강당에서 공연됐다. 오후 2시 30분과 7시 30분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본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주최, 예술대학 음악학부 주관이었다. 또한 후원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영암 김응조 목사 기념사업회 ▲본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총동문회 ▲비손컬쳐 ▲LJ 미니스트리였다.

예술대학 음악학부는 지난해부터 김응조 목사의 자서전 『은총 90』을 바탕으로 창작 뮤지컬을 기획해 극본과 음악을 만들고, 1학기여 여름방학 캠프를 통해 음악적인 면은 물론 연기력에 집중하며 이번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영암 김응조 목사는 1896년 경북 영

덕군 출생으로 현재 서울신학대학교의 전신인 경성성서학원에 입학 후 1년간 일본 전도여행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경험했다. 귀국 후 학업에 정진하던 중 3.1 운동이 발발해 학생신분으로 독립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영암 김응조>는 이를 바탕으로 ▲'새끼 모세'를 꿈꾸는 어린 김응조를 소개하는 프롤로그 ▲프랑스 대사관에서의 만세운동과 옥중 행보의 1막 독립운동 ▲부산에서의 부흥회, 2막 6.25 전쟁 ▲본교 건축부터 홍대실 권사의 교지 헌납과정인 3막 성결시대까지 총 90분의 러닝타임을 통해 그의 일대기를 그리며 기독교청년들을 위로하고 믿음의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했다.

막이 내리자 관람객들의 박수소리, 합성소리가 극장을 가득 메웠고, 한 관



람객은 “이미 학부생의 수준을 넘어섰다. 음악학부의 미래가 기대된다.”며 감명을 남겼다. 이날만을 위해 지난해부터 노력을 아끼지 않고 땀방울을 흘린 학우들의 열정에 찬사를 보낸다.

글 - 이서연 편집장 tjds1596@sungkyul.ac.kr  
사진 - 고석희(음악학부 성악과 19)학우, 본교 홈페이지

성결대학보

독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15면의 OX퀴즈를  
풀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instagram | sku\_press  
e-mail | skupress223@naver.com  
H.P | 010-5796-1596  
office | 학생회관 223호

# 모여봐요 동페의 숲

지난 9월 14일(수) 본교 운동장에서 제38대 '모든 계절을 그대와 함께 사계[四季]' 동아리 연합회가 주최한 2022 동아리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SUPER DONGARI PARTY' 닌텐도 컨셉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총 25개의 동아리가 부스 운영에 참여해 다양한 먹거리와 놀거리를 선사했으며 동아리연합회에서는 ▲1년 뒤에 편지를 보내주는 2023 with you ▲닌텐도 스위치 ▲인생네컷 ▲피크닉존 등 알찬 구성의 부스를 운영해 학우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더불어 ▲다양한 플리마켓 ▲퍼스널 컬러 진단이 있는 외부 부스도 운영됐다.



사계(四季) 동아리연합회 유명호(정통 17) 기획국장은 “코로나로 침체돼 있던 본교에서 동아리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에 이어 3년 만에 동아리 페스티벌이라는 크나큰 대면 행사를 앞뒤 떨리고 긴장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즐겨주실 학우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즐겁게 행사를 기획했다.”라며 뜻을 밝혔다.



부스 행사 이외에도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됐다.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성결대의 최고 끼쟁이를 찾는 '너의 끼를 보여줘!', <너·끼·보> ▲한시도 눈을 땄 수 없는 예능 분과의 동아리 공연 ▲닌텐도 스위치의 주인을 찾기 위한 경품 추첨 ▲폐막식을 화려하게 장식해 준 불꽃놀이를 끝으로 'SUPER DONGARI PARTY'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종석(체교 19) 학우는 “각 부스의 재미있는 게임을 해보고 맛있는 먹거리도 먹어보면서 활기찬 대학생의 기운을 얻을 수 있었고, 예능 분과 동아리의 공연을 보며 가슴속에서 웅장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기분을 느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3년간의 공백기 끝에 돌아온 동아리 페스티벌은 교내 다양한 동아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업에 지쳐있던 학우들에게 활력을 되찾는 시간을 선사했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동아리연합회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표하며 앞으로 계속될 동아리 페스티벌을 기대해 본다.

글 - 박제현 수습기자 zzciftjdz@sungkyul.ac.kr  
사진 - 학보사 일동, 흑심

## 페가수스, 두 개의 각 대회에서 동상 수상!

지난 9월 17일(토)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에서 개최된 '2022년 제12회 화성 뱃놀이 축제, 바람의 사신단 댄스 퍼레이드 경연 대회'에서 본교 대표 응원단 페가수스가 약 11개의 참가팀 중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페가수스의 새로운 기수인 21대 단원들이 참여한 첫 대회에서 이룬 쾌거였기에 더욱



의미가 남달랐다. 좋은 소식은 한번 더 찾아왔다. 지난 9월 24일(토)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2022년 제18회 천안흥타령춤축제, 전국 대학 치어리딩 대회'에서 본교 응원단 페가수스는 대학부 11개의 참가팀 중에 동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일 년에 한 번 개최되는 가장 큰 치어리딩 대회인 만큼 많은 노력을 들여



값진 결과를 맺었다. 한편, 페가수스는 매년 ▲교내 공연 ▲찬조 공연 ▲치어리딩 대회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대한민국 청년의 날 전국 치어리딩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은 이력이 있다. 수상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 영상은 페가수스 공식 SNS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으며, 매 무대 최선을 다해 멋진 공연을 선사하는 페가수스 응원단을 앞으로도 응원한다.

글 - 박제현 수습기자 zzciftjdz@sungkyul.ac.kr  
사진/참조 - 페가수스

# 한국장학재단 주체 국가우수장학금 시상식 진행



지난 9월 28일(수) 본교 총장실에서 한국장학재단 주체의 인문100년장학금과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시상식이 진행됐다. 인문100년장학금의 선발 대상은 인문사회계열 학부(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1,500명 내외의 학생들을 매년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본교는 금년 7명을 신규 선발했으며 총 12명의 장학생이 전액 장학금을 수혜받고 있다. 예술체육비전장학금의 선발 대상은 예술 및 체육계열 학부(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440명 내외의 학생들을 매년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본교는 금년 2명을 신규 선발했으며 총 3명의 장학생이 전액 장학금을 수혜받고 있

다. 두 장학금 모두 생활비 또한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추가 지원한다.

본 장학금에 대한 지원방법 및 선발 공고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하면 본교 학생지원과에서 학업 성적 및 학생역량 등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이때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가점을 부여하며, 선발된 장학생은 다음 학기에도 자동 선발되지만 기준 성적에 미달이면 탈락 처리가 된다.

글 - 이서연 편집장 tjds1596@sungkyul.ac.kr  
사진 - 본교 제공

## ‘2022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미디어소프트웨어학과 학우들의 쾌거



본교 미디어소프트웨어학과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주관 ‘2022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4팀, 장려상 1팀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본 경진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3차까지의 발표 과정, 9월 30일 최종 발표평가, 10월 4일 수상작의 최종 발표 과정을 거쳤다. 수상 팀은 우수상의 ▲대관람차와 아이들(김경진, 김수림, 홍재원) ▲HelloWorld(편진범, 홍윤서, 선우희은) ▲새내기 지망생(육현서, 황민경, 권영은, 전예은) ▲사각사각(최효림, 유성휘)이었으며, 지정과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해 각 팀에게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장려상은 MakeMe(류상현, 김경목, 반재은, 서다은)가 자유과제 부문에서 수상해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이로써 본교는 총 2,200만 원의 상금 수여와 더불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기록을 써나갔다.

글 - 이서연 편집장 tjds1596@sungkyul.ac.kr  
사진 - 백인(미소 18) 학우

## 스마자(Smadja) 박사 초청 국제세미나 개최

본교 사이버중독상담연구소(소장 박기영 교수)는 지난 9월 3일(토)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윤석주 교수)와의 공유협력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의 주제는 ‘커플 치료의 정신분석적 접근’으로, 특강은 에릭 스마자(Eric Smadja) 박사가 진행했으며 통역은 임말희 겸임교수가 맡았다. 스마자 박사는 현재 프랑스 정신과의사이자 가족치료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7년 정신분석 분야에 각별히 기여한 공로로 특별 연구자상을 국제정신분석학회(IPA)로부터 수상한 바 있다.

금번 특강에서 스마자 박사는 커플이란 역사적으로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되는 살아 있는 복합적인 실체라고 보면서 구조적으로나 역동적으로 갈등과 위기를 품고 있다고 했다. 커플의 갈등은 집단적 수준, 상호 주관적 관계, 개인의 정신 내적인 차원에서 보아야 하며, 고통을 받는 커플들을 치료하는 임상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특강 이후에는 커플 치료에 대해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커플 치료에 대한 상담 역량을 강화시켰다.

금번 세미나에는 성결대 소속 학부생 및 대학원생 83명 포함 총 180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앞서 축사를 담당했던 박기영 교수는 본교 프라임대학원 상담학과 홍보와 더불어 이후에도 열린사이버대학교와 공유협력 국제세미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본교 인준연구소로 승인받은 사이버중독상담연구소는 ▲신학분과 ▲상담분과 ▲복지케어분



Eric Smadja 박사

박기영 교수

과로 구성돼 있으며 7명의 운영위원(김성영 교수, 민장배 교수, 박기영 교수, 박미라 교수, 이수경 교수, 송진영 교수, 천인순 국장)이 있다. 본 연구소는 사이버중독에 대한 다학제간 연구를 통해 학부 및 대학원생들에게 상담관련 학문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 4월에도 중독 전문가(을지대 서보경교수)를 초청해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재는 사이버중독 관련 3개의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며 12월 9일(금)에는 학부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글 - 이서연 편집장 tjds1596@sungkyul.ac.kr  
사진 - 본교 제공

## 버지니아 워싱턴 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본교가 지난 10월 6일(목) 미국 버지니아 워싱턴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본교 김상식 총장, 조준범 국제교류처장, 버지니아 워싱턴대 피터 장(Peter Chang) 총장, 조이스 박(Joyce Park) 부총장, 데이비드 리(David Lee) 입학처장 등을 비롯한 양측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대학은 학술 및 연구협력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구축했으며 동·하계 방학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해 국제교육과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류하기로 했다.

김상식 총장은 “본교와 버지니아 워싱턴대의 업무협약이 체결돼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두 대학이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 학생, 교수들의 교류를 통해 교육 및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앞으로 더 발전됐으면 한다.”며 뜻을 밝혔다.

글 - 이서연 편집장 tjds1596@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 놀고! 먹고! 복-고 영-블러디드



우리들의 축제, 영암축전이 3년 만에 본교 운동장에서 개최됐다. 대학생들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축제가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개최되지 못하다, 올해 다시 우리 곁으로 찾아왔다. 이번에 개최된 영암축전은 그동안 침체돼 있던 본교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학과별로 연 다양한 부스부터 축제의 꽃 연예인 공연까지! 영암축전, 그 생생한 열기를 이번 호를 통해 느껴보자.

## # 눈으로 보고 입으로 즐기는 다양한 먹거리

‘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맛있는 먹거리들! 이번 영암축전을 맞이해 과마다 다양한 먹거리 부스를 열었다. 맛있는 음식들로 입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학과별로 부스 콘셉트를 정해 눈으로 보는 재미까지 더해졌다. 경영학과의 매콤한 닭강정뿐만 아니라 신학과의 달콤한 호떡, 글로벌물류학부의 인기 만점 삼겹살 비빔면 등 다양한 음식들이 학우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줬다. 먹거리뿐만 아니라 인형 뽑기와 영수증 사진기 등 색다른 부스를 열어 학우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 # 영암축전을 더욱 풍성하게! 함께 즐기는 이색 이벤트

### 정진상회



총학생회에서는 이번 축제 콘셉트인 복고에 맞게 ‘정진상회’를 열어 학우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을 잡고 먹었던 달콤한 솜사탕부터 아슬아슬 추억의 뽑기, 그리고 예쁜 반다나와 머리핀 장식까지! 정진상회를 통해 학우들은 어린 시절 향수를 느낄 수 있었다.

### 어트랙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오락게임까지 즐겼다면 이제 온몸으로 축제를 즐길 차례! 축제에 나타난 로데오와 디스코광판은 많은 학우의 관심을 듬뿍 받았다. 모든 어트랙션의 줄은 인기 놀이기구를 연상케 할 정도였다. 많은 학우들이 어트랙션을 온몸으로 즐길 뿐만 아니라 사진도 찍으며 행복한 추억을 남겼다.

### 오락실

어린 시절 학교가 끝나자마자 달려갔던 오락실. 밀린 숙제는 뒷전으로 미루고 즐겼던 오락기가 이번 영암축전에 등장했다. 오락기의 다양한 게임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상기시키기 충분했다. 친구들과 앉아 오락게임을 즐기는 학우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 인생네컷 부스 & 포토존

행사하면 빠질 수 없는 부스! 바로 인생네컷 부스다. 평소에도 많이 찍는 인생네컷이지만, 학교에서 찍는 것은 왠스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법! 매 행사 때마다 등장하는 부스지만 항상 인기가 많아 줄을 서는 학우들로 가득하다.

인생네컷 부스의 줄이 길어 사진을 못 찍었다면? 아쉬워하지 말고 포토존으로 향하자! 중생관 앞 잔디밭에 과거로 추억여행에 떠날 수 있는 콘셉트 포토존이 등장하였다. 옛날 동네 사진관을 떠올리게 했던 이번 포토존은 복고 느낌이 물씬 느껴졌다. 포토존에는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예쁜 포즈를 짓는 학우들로 가득했다.



## # 오늘을 기다려왔다! 다양한 볼거리

### 우리 과가 제일 잘 나가! 최강학부

본교 축제에서 학우들이 참여하는 코너 중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최강학부. 최강학부는 학과별로 춤을 창작해 무대에 올라가 공연을 하는 코너다. 학과를 빛내기 위해 춤을 추는 학우부터 춤추는 학우들을 위해 무대 밑에서 열렬하게 응원하는 학우들까지! 최강학부는 과별로 단합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코너기 때문에 더 뜻이 깊다.



올해 최강학부가 어느 학과가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연극영화과가 당당하게 1등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체육교육과와 사회복지학과는 각 2등, 3등을 차지했다.

### 축제의 꽃! 연예인 공연

축제의 꽃은 단연 연예인 공연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영암축전에서는 첫날인 10월 5일에는 풀킴의 달콤한 노래로 시작해 다이나믹듀오의 신나는 랩과 비비의 매력적인 퍼포먼스로 무대가 가득 채워졌다. 둘째 날인 10월 6일에는 어반지카과의 조화로운 화음과 디에이드의 감성 깊은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다섯 아티스트와 함께 축제의 밤은 더욱 깊어져 갔다.



### 캠퍼스에서 즐기는 낭만, 힐링콘서트

지친 하루 끝 운동장에서 즐기는 힐링콘서트. 이번 힐링콘서트는 동아리 공연으로 무대가 가득 채워졌다. '소너러스'의 고막을 자극하는 발라드부터 '흑심'의 짜릿한 칼군무와 본교의 자랑 '폐가수스'의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치어리딩까지! 다양한 동아리가 준비한 공연들 덕분에 학생들은 왁자지껄한 축제 속에서 작은 힐링을 느낄 수 있었다.



###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파워FM

이번 영암축전이 더욱 파스했던 이유는 바로 파워FM 덕분이 아니었을까? 영암축제 전, 학우들에게 제보를 받은 사연들이 운동장에서 울려 퍼졌다. 진행자들의 재치 있는 진행으로 학우들의 사연이 더욱 생동감 있게 전해졌다.

친구 혹은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던 고민부터 사소한 일상 속 재미난 에피소드까지, 파워FM의 다양한 사연은 축제를 즐기는 이들의 귀를 즐겁게 만들었다.

### 너의 끼를 뽐내봐! 장기자랑



성결 끼쟁이들 여기 모두 모여라! 학우들의 숨겨져 있던 끼를 맘껏 발산한 장기자랑 코너는 올해도 다양한 끼쟁이들의 무대로 알차게 꾸며졌다. 특히 장기자랑 공연은 일반 학우들도 투표를 통해 심사에 참여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한 코너였다. 감미로운 노래와 박력 넘치는 춤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학우들의 오감을 즐겁게 만들었다.



### 학생회장 인터뷰

이번 영암축전은 3년 만에 개최된 만큼 많은 학우의 관심과 사랑이 이어졌다. 축제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을 본교 총학생회장 조민주 학우의 소감을 들어보자.

#### 1. 3년 만의 대면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가장 노력을 기울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틀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부스를 운영하는 것은 기존 축제와 동일했지만, 가을 축제에 맞게 콘셉트와 부스 이외의 즐길거리를 다양화하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알전구 설치, 네온사인 간판 제작, 어트랙션 등 세부적이고 사소한 것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풍요로운 축제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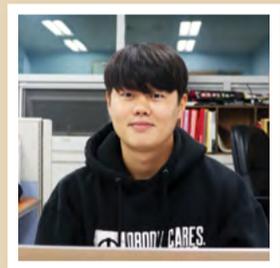
#### 2. 이번 축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아쉬웠던 부분이라면 당연히 예산의 부족이겠지요. 타 대학에 비해 재단의 규모가 작다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한 예산 지원의 한계는 기획자로서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학우들에게는 아마도 연예인 리스트가 가장 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도 더 많은 아티스트를 초

청하지 못한 것이 너무도 아쉬웠습니다. 준비했던 것들을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포기해야만 했던 것이 축제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 3. 이번 축제를 많은 학우들이 즐겨주셨습니다. 학우들에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공연을 통해 무대를 채워주신 참가자분들과 축제를 즐겨주신 많은 학우 여러분들까지, 축제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무한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풍요로운 축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암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 正:진 총학생회를 비롯해 많은 기관 및 단과대학, 학부(과) 학생회 임원들이 많이 고생해 주었어오.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려가며 준비한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자 값진 노력의 결산이라는 것을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복고’라는 색다른 콘셉트로 진행된 이번 영암축전은 학우들의 어린 시절 향기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 다양한 먹거리부터 볼거리까지 없는 게 없었던 이번 축제가 시험과 과제로 지쳐 있는 많은 학우들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길 바란다.

# 취·창업박람회

구직자라면 좋은 기업에 입사하길 원하고 예비 창업자라면 성공적인 창업을 기대한다. 이들을 위한 분야별 취·창업 박람회가 열린다. 본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은 기업과 현장 매칭이 이뤄질 수 있고 그 산업에 종사하는 분야별 전문 멘토로부터 취업 진로에 대한 상담을 받거나, 기업별 채용설명회, 취업 특강 등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호에서는 4분기에 진행되는 취·창업박람회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 #2022 항공산업 JOB FAIR



〈2022 항공산업 JOB FAIR〉는 2022년 10월 27일(목)~28일(금) 동안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 터미널 교통센터에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항공 일자리 취업지원센터, 한국항공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 주관하는 본 박람회는 항공 및 공항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구직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항공운송 ▲공항운영 ▲지상조업 ▲항공기 제작·사용 사업 ▲취급·정비 ▲조경량 비행장치 ▲공항 상업시설(면세, 물류, 호텔, 식음료) 등 항공분야 민간·공기업 등 80개 내외의 기업 및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행사는 ▲개막식 ▲항공 일자리 정책홍보관 ▲특별기업관 ▲현장 채용관 ▲기업상담·홍보관 ▲멘토링관 ▲취업지원관(기업별 채용설명회, 명사특강, 취업특강, 취업 선후배 Talk 콘서트, 취업 오디션 등) ▲

## #2022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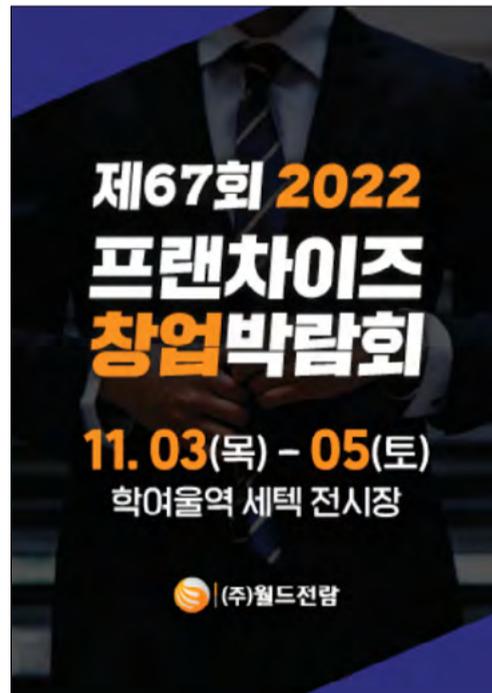


〈2022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되는 박람회이다. 온라인은 2022년 10월 17일(월)~11월 11일(금), 오프라인은 2022년 11월 8일(화)~9일(수) 양재iA센터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여행업 ▲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등 관광 유관 기업 총 90개사에서 참여한다. 온라인 입사 지원 기간은 10월 17일(월)~10월 28일(금)이다. 채용기업 입사 지원 시 홈페이지 공고 하단에 있는 이력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해 지원하면 온라인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11월 3일(목)~11월 4일(금)에 면접 스케줄링이 이뤄진다. 현장 면접은 11월 8일(화)~11월 9일(수)에 진행된다.

부대행사(이력서 사진촬영, 이미지 컨설팅 등)가 진행된다.

박람회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온라인 회원가입 또는 현장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박람회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후 모바일 출입증을 등록해야 입장할 수 있다. 또한 현장 채용관에서 면접을 희망할 경우 해당 기업의 QR코드를 스캔하고 명부를 작성한 후 담당자와 면접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업의 요구사항 및 필요서류를 확인해 이력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한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이력서 작성대에서 작성 후 제출할 수 있다.

## #제67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SETEC 2022



〈제67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SETEC 2022〉는 2022년 11월 3일(목)~11월 5일(토) 동안 SETEC에서 진행되는 국내 최장수 창업박람회이다. ▲외식 ▲비 외식 ▲도소매 ▲서비스 ▲점포·외식 설비 부문으로 나뉘어 다양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참여한다.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 등록자는 본인에 한해 무료입장이 가능하고 현장 구매 시 입장료는 10,000원이다. 본 박람회는 창업을 고민하는 모든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업종 추천, 비교 가능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 매칭이 이뤄진다. 현장 매칭이란 월드전람 매칭 담당 매니저가 예비 창업자의 창업 여건을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참가 브랜드를 매칭해 최적의 상담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이다.

## #2022 메타버스 프리랜서 박람회



팬데믹과 고용환경 변화로 인해 프리랜서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각종 불공정 거래 및 사회안전망의 미흡, 기업의 인재 찾기 어려움 등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내 최초 메타버스에서 진행되는 프리랜서 박람회인 〈2022 메타버스 프리랜서 박람회〉가 개최된다. (주)인트윈이 주최·주관하는 본 박람회는 프리랜서, 관련 서비스 기업, 향후 프리랜서를 희망하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 28일(금)~29일(토) 동안 2022 프리랜서 박람회 홈페이지 및 메타버스 전시관(ZEP)에서 진행된다.

〈2022 메타버스 프리랜서 박람회〉는 ▲메타버스 전시관 ▲메타버스 홍보관 ▲메타버스 이벤트로 구성되었다. 메타버스 홍보관은 일강X인재매칭 프로그램, 정보교류 세미나(정보 및

스킬 공유, 산업 동향 등), 설명회(프리랜서 관련 지원정책, 서비스, 법률 상담 등)가 진행된다.

본 박람회는 프리랜서를 위한 일강·서비스·정보·교육·정책 등의 정보 공유 및 기업과의 업무교류 활성화를 통해 프리랜서와 기업이 함께 상생하고 성장을 도모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다. 이를 통해 업무 진행의 유연화, 클라이언트와의 다이렉트 소통으로 업무의 질과 수익 건전성 향상, 정부의 정책과 제도 홍보를 통한 프리랜서의 처우개선, 프리랜서 시장의 건전한 시장 문화 창출이 가능하다. 프리랜서는 지인을 통한 수주가 아닌 특정한 장소에서 검증된 기업을 매칭받을 수 있고 기업은 고용 부담 및 채용 리스크를 덜며 프로젝트에 적합한 프리랜서인지 사전 미팅을 통해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다.

한 학년의 중반이 지나고 졸업 시즌이 가까워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학우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조금씩 할 필요 없다.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아서 진로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그와 관련된 박람회에 참석해 정보를 얻으며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 가면 된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면 이긴다."라는 말처럼 성취 시기가 느리더라도 꾸준히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준비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글 - 문예빈 기자 cagi77@sungkyul.ac.kr  
사진 - 네이버  
[참조] 박람회 홈페이지

# 히잡을 벗어던지는 여성들

최근 변화하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는 여러 방면에서 존중받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억압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자신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열심히 투쟁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 역시 그들의 자유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이란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쓰고 있던 히잡을 벗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들의 투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 히잡의 유래



히잡은 '가리다, 숨기다'의 뜻을 가진 동사 '하자바(Hajaba)'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히잡의 시작은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서 찾을 수 있다. 코란 제24장 31절은 여성이 감추어야 할 부분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리고 믿는 여성들에게 일러 가로되 그녀들의 시선을 낮추고 순결을 지키며 밖으로 나타내는 것 외에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아니 되니라. 그리고 가슴을 가리는 머리 수건을 써서 남편과 그녀의 아버지, 남편의 아버지, 그녀의 아들, 남편의 아들, 그녀의 형제, 그녀 형제의 아들, 여성 무슬림,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하녀, 성욕을 갖지 못하는 하인 그리고 성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 외에는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되니라.”*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와 이슬람 율법 학자들 역시 '손과 얼굴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감춰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더 완고한 무슬림은 여성의 얼굴마저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란과 무함마드 언행록을 바탕으로 한 이슬람 율법 사리아에 따르면 무슬림 여성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과 얼굴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가려야 한다. 머리를 가리도록 하는 이유는 이슬람 사회에서는 여성의 머리카락은 남성을 유혹하는 위험한 부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 # 히잡의 역사

여성의 옷차림에 대한 엄격한 규정은 이슬람교가 시작된 7세기 이전의 아랍 사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아랍에서는 유목민 부족들 간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잦았으며 적의 침입 시 여성의 피해가 컸다. 성적 도구로 유린당하거나 노예로 팔려 가는 일이 빈번했기에 여성 보호가 시급했고, 최소한의 방편으로 의상을 선택해 히잡을 입게 됐다. 이슬람의 가르침대로라면 얼굴은 드러내도 되지만 이슬람 이전부터 생겨난 순결에 대한 압박은 몸의 모든 부분을 감추는 옷차림을 낳게 됐다. 가장 극단적인 예로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이 입는 '부르카'에서 찾을 수 있다. 부르카는 얼굴까지 가리며 겨우 밖을 볼 수 있는 눈 부분마저도 망사로 가려져 있다. 과거 여성 보호를 위해 생긴 히잡이 이제는 보호의 목적이 아닌 억압과 속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히잡은 이슬람 사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쿠웨이트의 경우 2008년 여성 장관 2명이 취임 선거 때 히잡 착용을 거부했다가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산 일이 있었으며 1979년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 후 여성들에게 차도르 착용을 의무화하자 많은 이란 여성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 시위의 불꽃

현재까지도 이란에서는 히잡에 대한 강요와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이란에서 20대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구금됐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일을 계기로 이란에서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 시위는



지난 9월 13일 가족과 함께 테헤란의 친척 집에 방문한 22살 마흐사 아미니가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란 경찰에 구금된 뒤 사흘 동안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16일 병원에서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아미니가 사망한 이튿날부터 4주 넘게 거리에서 대대적인 항의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약 18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시위는 그녀의 고향인 이란 북서부 쿠르디스탄주 사케즈에서 처음 일어났으며 수도 테헤란을 포함해 이란 여러 도시로 퍼졌다. 시위대는 히잡을 벗어 흔들고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향해 “독재자에게 죽음을”이라고 외쳤다. 테헤란 대학에서는 학생 수십 명이 시위에 나와 “쿠르디스탄에서부터 테헤란까지 이란이 피를 흘리고 있다.”라며 외쳤고 일부는 “여성, 생명, 자유”,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행진했다.

이란의 반국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19일 이란 경찰은 “아미니의 죽음은 불운한 사건이며,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슬람 신정체제인 이란 지도부는 아미니의 죽음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지만, 시위의 배후에는 미국 등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은 아미니가 경찰차에 실려 구치소로 끌려가던 중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폭력을 쓰지 않았으며 심장마비로 인해 숨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란 매체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아미니가 경찰에 연행된 뒤 재교육 센터에서 쓰러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 # 국제 사회의 관심



국제 사회도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란의 인권을 감시하는 노르웨이 등록 인권 단체 '헝가우'는 쿠르디스탄주 도시 사난다지에서 지난 18일 경찰 진압으로 시위대 최소 38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란과 핵 합의 복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도 이 시위에 대한 지지를 보여줬다. 로버트 펠리 이란 주재 미국 특사는 SNS를 통해 “기본권을 행사한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폭력은 중단하라. 그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럽의 배우, 정치인 등 많은 유명인들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며 히잡 시위에 연대하는 등 시위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 # 현재 이란은 ...

이란 정부는 여성의 히잡 착용을 감시하기 위한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지 시각 기준 9월 5일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 권선징악위원회를 이끄는 모하마드 살레 하세미 골파 예가니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을 처벌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8월 15일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히잡 착용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령에 서명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법령에 따르면 히잡을 쓰지 않은 사진을 온라인에 공유한 여성은 6개월에서 1년간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벌금을 물게 된다. 여성 공무원의 경우 해고도 가능하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21세기인 현재, 히잡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글 - 박미경 기자 qkrallud0827@sungkyul.ac.kr

사진 - 연합뉴스, 뉴스1, 게티이미지 코리아

[참조] 한겨레, 조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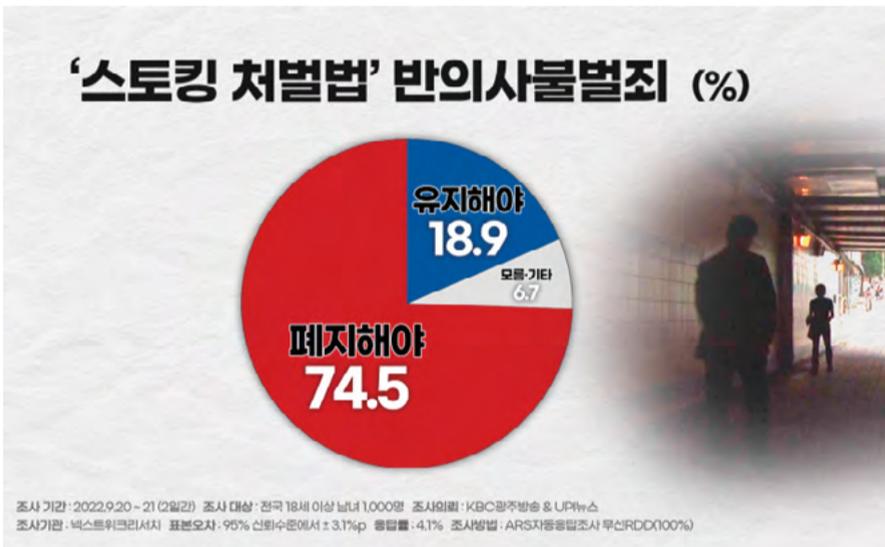
# 지속적인 '스토킹' 의 쟁점, 중벌하고 있는가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시행됐으나, 스토킹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9월 14일 서울에서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현행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이번 호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 '스토킹'은 가벼운 범죄이다?

지난 9월 14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30대 남성 A씨로, 피해자였던 여성 역무원 B씨와 직장 동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다 기소돼 직장 내 직위 해제 상태였으며, 이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 사건의 구조적 원인은 '스토킹에 대한 문제의식'이 안일했다는 점이다. 피해 여성 B씨는 가해자 A씨에게 약 3년간 스토킹에 시달려왔으며, 2차 고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경찰은 1차 고소 과정에서 A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뿐 더러 2차 고소에서는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지속적인 불법 촬영 및 스토킹은 자칫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너무 가볍고 안일하게 생각했다.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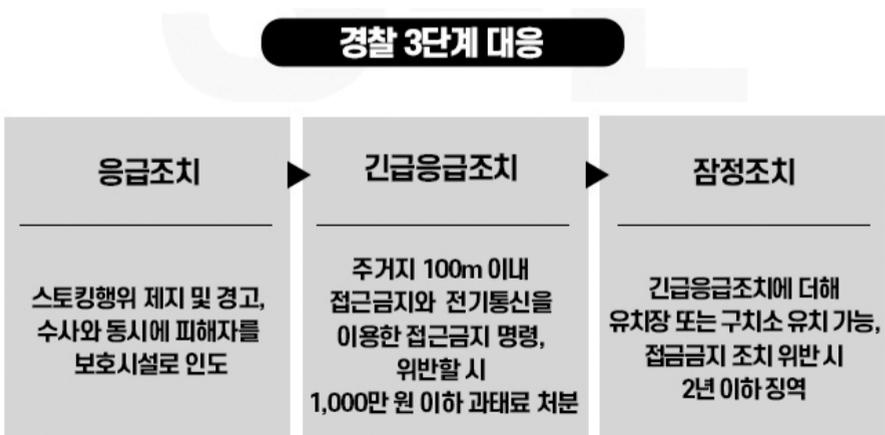
## # 피해자가 원치 않는 형벌, '반의사불벌죄'



최근 들어 현행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이다. '반의사불벌죄'는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 강간죄·강제추행죄 등 형법상 성범죄도 반의사불벌죄였으나, 가해자의 합의 강요 등 2차 가해 문제가 심각해 2013년 폐지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합의를 종용했다. 이는 피해자 개인의 선택에 형벌이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나, 가해자가 처벌 권한을 지닌 피해자를 압박할 시 처벌 취소나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스토킹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장, 행동반경, 가족, 지인 등 개인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이를 이용해 협박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 측은 합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법무부는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신속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반의사불벌죄는 처음부터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 법무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에 대해 인식이 일천하거나 혹은 알고 있음에도 가볍게 여기고 외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비판의 입장을 내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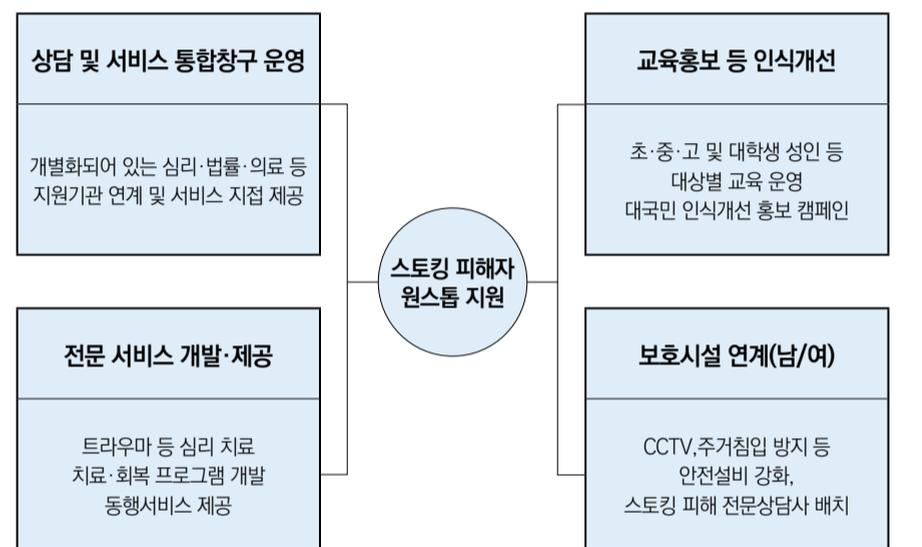
## # 당장의 긴급보호조치, 안심할 수 없어요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피해자 보호조치 중 가장 강력한 조치는 가해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다. 그러나 지난 9월 16일 법무부가 제공한 '스

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신청 결과'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잠정조치 4호 청구의 55%를 기각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데 가장 확실한 잠정조치 4호의 절반 이상이 기각된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피해자의 조치와 관련해 세 가지 개정 사항을 제안했다.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형사처분을 진행해 가해자를 선 유치하고 사후 판단을 받도록 하는 긴급잠정조치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경찰-검찰-법원 3단계로 돼 있는 보호조치 결정구조를 경찰-법원 2단계로 간소화할 것을 제시했다. 본 개정안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및 대검찰청은 10월 13일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 관련 후속 실무 협의 회의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 # 저를 보호해 주세요!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해 10월에 시행됐고, 그 후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4월 피해자 신변을 지킬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발의됐다. 원 구성이 늦어지며 이제야 진행되는 가운데 '보호법이 빨리 처리됐다면 조금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며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미국, 독일 등 타 국가의 경우, 사이버 스토킹을 포함한 스토킹 자체를 독립적인 범죄로 인정해 벌금 혹은 징역을 필수적으로 하는 강력한 스토킹 처벌법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또한 보호시설 및 법안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스토킹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을 10월부터 운영 중이며,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여성 2곳, 남성 1곳 등 총 3곳이 있다. 내년부터는 스토킹 피해자가 ▲심리 ▲법률 ▲의료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와 경호원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동행 서비스'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본 보호시설은 기존의 다른 시설과 달리 출·퇴근 등 일상 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하다. 이에 서해진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일시적으로 휴대전화 계정을 새로 만들어주는 등 안전 우려를 해소할 여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밀한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벼운 처벌에 비해 스토킹 범죄 및 2차 가해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스토킹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님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글- 정예슬 기자 jys020907@sungkyul.ac.kr  
사진 - 경제산업TV, 넥스트위크리서치  
[참조] 경향신문, 아시아경제



# AI의 역사 특집!

## “나를 모를 수가 없지! 그래도 내 소개 들어줄래?”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어로 인공지능이다. 이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이 갖고 있는 지능인 자연지능(Natural Intelligence)과는 다른 개념이다. 인공지능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이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을 구현하려는 컴퓨터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이다. 즉 지능을 갖고 있는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며,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에 인공적으로 시현한 것으로 컴퓨터가 인간처럼 판단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물

이나 데이터를 군집화하거나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뉴스 요약 서비스 ▲이미지 분석 ▲자동 운전 ▲자율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 “언제부터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었니?”



인공지능은 알파고를 통해 전 세계의 관심을 끌게 됐다. 오랜 침체기를 거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급속한 발전과 빅데이터가 뒷받침돼 딥러닝이 구현되는 극적인 돌파구가 열리면서 전환기를 맞게 된 것이다. 현재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2016년을 대표하는 사건 중 하나는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의 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알파고를 통해서 인공지능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분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인간의 지능

을 가지고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인간이 계산 방법을 발전시키면서 대두됐다. 1930~1940년대부터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기대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튜링테스트 ▲수리논리학 ▲컴퓨테이션 ▲인공두뇌학 ▲정보이론 등 인간의 사고 과정에 대한 이론들이 등장했다. 1956년에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됐다. 하지만 일반적인 지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판명돼 침체기를 겪기도 했지만 1990년대 인터넷의 발전으로 부활했다.

## “딥러닝이란 AI는 무슨 사이야?”

딥러닝의 고안은 AI가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인공지능은 규칙을 컴퓨터에 주입하는 지도학습법이 활용됐다면,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수많은 빅데이터를 분

석해 스스로 학습하는 이른바 '머신러닝'의 형태로 진화하게 됐다. 하지만 데이터가 포함된 내용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한계점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한계점을 뛰어넘는 것이 딥러닝이다. 딥러닝은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닌 데

이터를 통해 학습까지 하는 능력을 활용해 최적의 결론을 내린다. 즉, 인간의 두뇌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한 뒤 사물을 구분하는 정보처리 방식을 모방한 것이다.

## “AI 내 주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네이버의 음성인식 AI 비서, 클로바노트]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TTS(Text To Speech) 기술은 90년대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기술이었다. 하지만 클로바노트는 이와 반대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STT(Speech To Text)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처음에는 간단한 단어만 인식할 수 있었던 음성인식 기능을 이제는 회의나 강연과 같은 긴 문장의 음성도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클로바노트의 주 기능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AI가 핵심 내용을 요약해 준다. 주제별로 문단을 나눠 문단에서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고, 요약된 구간의 음성 기록도 찾아줘 상세한 내용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알아서 위험을 감지해 장애물을 피하고 도로 교통 상황을 인지하는 기능이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는 전체 교통사고의 95%가량을 차지하는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와 보복운전이 감소될 것으로 본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AI 기술은 ▲

장애물의 인식 ▲장애물의 움직임 ▲장애물의 예상 방향 ▲속도에 따른 대응 ▲주변 차량의 인식 ▲주변 차량의 움직임 예상과 대응 ▲신호 인식 및 속도제어 등이 있다.

## “AI 산업 어디까지 발전했을까?”

코로나19로 AI 기술이 제일 빠르게 진보한 분야는 의료 분야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를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전자 염기서열의 일부가 변해 발생하는 돌연변이를 알아내기 위해 염기서열을 나열해 AI에 딥러닝하도록 했다.

또한 인간의 감정을 측정해 이해하고, 반복된 학습으로 인

간의 감정을 인식한 뒤 반응하는 기술인 인공감성지능 분야도 존재한다. 이는 고객 지원 서비스 산업, 교육산업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AI 특집을 통해 AI의 역사와 AI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아봤다. 앞으로 인공지능의 미래는 인간보다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기술은 사람을 돕는 형태로 발전하는 도구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양한 산업에 AI 기술을 어떻게 새롭게 접목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자.



## 익숙함에 속지 말자! 마스크의 나비효과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발생한 후 개인 방역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일회용 마스크는 폐기 과정에 있어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번 호에서는 그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한 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마스크 소비량이 증가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마스크 소비량은 국민 1인 평균 2, 3일당 1개, 국내 전체 마스크 소비량은 하루 2,000만 개다. 즉, 버려지는 마스크의 양도 하루 2,000만 개라는 뜻이다. 이렇게 버려지는 마스크는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된다. 그 이유는 마스크의 주원료가 플라스틱의 성분인 폴리프로필렌으로 매립 시 완전 분해까지 450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나무젓가락 20년 ▲우유 팩 5년 ▲금속 캔 100년 등 다른 원료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마스크를 버릴 때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 후 소각한다. 하지만 마스크를 소각할 경우,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페트병을 소각할 때보다 30% 이상 더 많이 배출된다. 또한 마스크를 생산할 때도 온실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두 추산치를 합산하면 대략 하루 1천 톤, 연간 36만 5천 톤이다. 그마저도 소각장이 부족해 수거된 마스크의 30%는 땅에 매립되고 있어 어느 방향으로든 마스크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마스크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실천하기 쉬운 재사용 마스크 및 생분해 마스크 사용이다.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마스크는 일회용 마스크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생분해 마스크는 토양에서 28일 이내에 생분해돼 환경 오염 방지 효과가 뛰어나다.

두 번째는 일회용 마스크 재활용이다. 플라스틱 재활용과 같이 버려진 마스크를 이용해 새로운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한 기업에서는 일회용 마스크에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을 펠릿 형태로 만들어 옷걸이로 제작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일회용 마스크를 재활용하는 데 성공한 사례이다. 본 기업은 폴리프로필렌 소재가 쓰이는 곳이 다양하기에 향후 옷걸이 이외에도 다양한 용품으로 확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다. 한 생분해 마스크 제작 기업에서는 생분해 마스크가 기존 일회용 마스크의 제작 단가에 비해 약 1.5배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대중적인 측면도 떨어지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따라서 생분해 마스크를 제작하는 비용을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나 마스크와 관련된 환경 오염에 관한 정부의 법안 발의 등 다양한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해서 착용해야 할 마스크, 이제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 하지만 이 익숙함에 속아 마스크를 버리는 작은 날갯짓이 환경 오염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날이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에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글 - 박제현 수습기자 zzciftjdz@sungkyul.ac.kr

[참조] TV조선, 녹색경제신문



## 한글은 민족의 표상이다, 조선어학회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 직접 28글자를 만들어 1446년 훈민정음을 반포했다. 올해로 한글날은 576돌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한글은 국권회복운동의 수단이었으며 그 당시 학자들이 지키고자 했던 한민족의 정체성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거리를 걷다 보면 한글보다 외국어가 많이 보이는 추세이다. 우리는 과연 한글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 한글의 소중함과 역사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선어학회'의 공헌을 소개하고자 한다.

### #한글, 일제로부터 탄압

1910년 체결된 한일합병조약에 따라 통치권을 빼앗기고 이에 따라 우리 민족의 말과 글도 탄압되기 시작했다. 조선어 과목 폐지와 일본어 사용을 강요한 1938년을 시작으로, 1940년에는 조선어로 된 신문과 잡지 폐지, 창씨개명이 강요됐다. 일본은 조선어를 말살시키길 원했으며 일본어 보급을 통해 한민족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이런 일본에 대항하는 단체가 있었다. 1908년 한글 연구를 위한 학술모임 국어연구학회로 시작된 조선어학회였다.

### #조선어학회 창립

주시경은 국가 형성의 세 요소가 '구역, 인종, 언어'라는 말을 듣고, 말과 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주시경과 여러 사람은 그 뜻을 실현하고자 1908년 8월 31일 국어연구학회를 설립했다. 그 후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 1921년 12월 3일 한국어와 한글 연구를 목적으로 '조선어연구회'를 만들어 계승했다. 조선어연구회는 오늘날 한글날에 해당하는 가가날을 지정해 기념식을 열고 한글 보급을 위해 노력했으며 '조선어사전편찬회'를 만들어 국어사전을 만들기도 했다. 이후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었지만 1931년 명칭이 '조선어학회'로 결정됐다. 조선어학회는 <한글>을 창간해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하는 등 우리말 연구와 한글 맞춤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 #조선어학회 사건

하지만 일제의 눈에 조선어는 한민족의 정체성이자 독립운동의 수단이었다. 일제는 1942년 10월 1일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켰다. 조선어학회의 사무실을 수차례 수색하고, 조선어학회의 회원 33명을 검거해 탄압했다. 33명 중 항일독립운동과 관련 있는 14명은 치안유지법에 근거해 재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사전 편찬 작업은 중단됐고 조선어학회의 자료 또한 압수됐다. 일제에 검거된 조선어학회 학자 중 이극로는 징역 6년형을 받고, 이윤재와 한정은 형무소에서 순국했다.

### #사전 원고의 행방과 사전 발행

1945년 광복과 함께 감옥에서 풀려난 한글학자들은 중단했던 <조선말 큰사전>을 편찬하려 했다. 하지만 사전 원고를 찾을 수 없었으며 일제가 없애 버린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기적적으로 조선어학회의 사전 원고가 1945년 10월 4일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됐다. 그 이후 2년여가 지난 1947년 10월 9일 첫번째 <조선말 큰사전>에 이어, 1949년에는 둘째 권이 발간됐다. 셋째 권을 제본 중이던 1950년에는 전쟁이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어학회의 사전 편찬 작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즉 역사적인 노력을 통해 한국어가 지켜진 것이다.

<조선말 큰사전>의 머리말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우리말은 곧 우리 겨레가 가진 정신적 및 물질적 재산의 총목록이라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이 말을 떠나서는 하루 한때라도 살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한글을 때놓고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다. 우리의 정신적, 물질적 재산인 우리말을 잃지 않기 위해 한글을 지키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일상에 스며든 한글, 익숙해졌기 때문에 귀중하다는 걸 잊고 사는 것이 아닐까. 평화롭게 한글을 쓰는 것에 감사하며 한글을 지키려고 했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글 - 김다은 수습기자 kijg99@sungkyul.ac.kr

사진 - 한국역사연구회

[참조] 국립국어원, 한겨레 신문

걸어서 지역속으로

# 과거와 현대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도시, 수원으로!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은 정조의 모든 것이 담겨 그 모습은 감탄을 자아낸다. 최근 인기를 끈 드라마의 촬영지로 알려진 수원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그동안 수원에 대해 몰랐던 독특하고 재미있는 장소에 대해 파헤칠 예정이다. 수원에서 함께 기분 전환해 보자!

##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수원은 '2022 힐링폴링 수원화성'을 통해 정조의 꿈, 인인화락(人人和



樂)에 푹 빠졌다. 본 축제는 ▲수원화성 미디어 아트쇼 ▲2022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제59회 수원화성 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으로 구성돼 있다. 가장 먼저 개막한 수원화성 미디어 아트쇼는 수원천 지형을 활용해 화홍문부터 남수문까지 총 4구간의 다양한 작품을 산책하며 즐기는 것으로, 성곽과 하천에 기술까지 더해 하나의 거대한 예술관람이 가능했다. 또한, 화성성역의궤를 토대로 수원화성을 축성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장인들을 조명하고 알아보는 프로그램·공연들과 함께 MBTI를 활용해 어떤 장인 유형에 속하는지 테스트,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공모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었다.



## #드라마 속으로!

최근 수원 행리단길에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많은 인기 속에 종영한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 아버지가 운영하는 김밥집 촬영지가 이곳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곳은 행궁동 일식당인 카지구루마라는 가게이다. 전부터 행리단길에서는 그동안 <그해 우리는>, <경이로운 소문> 등 여러 드라마가 촬영됐고 주변에 카페, 맛집이 몰려 있어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다. 행리단길에 방문해 드라마 속 분위기를 직접 느끼고 한적한 매력을 경험해 보는 것은 어떨까?



## #시장만의 정겨움에 웃음을!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후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못골시장 또한 마찬가지다. 못골시장은 2008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시범사업'인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재래시장으로 변화했다. 이곳 못골시장에는 다른 시장과 다르게 특별한 것이 있다. 바로 국내 최초 시장 라디오 방송 '못골은애어'이다. 못골

은애어는 화요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시장 골목에 활기찬 방송을 시작한다. 참여 고객과 상인들 간의 소통을 위해 90여 개 점포의 상인들이 직접 PD, 작가, DJ까지 맡아 전통시장 최초 DJ로 활동하고 있다. 사람들의 이야기와 상인 DJ 각자의 개성, 시원시원한 입담과 즐거운 수다를 즐길 수 있다. 재래시장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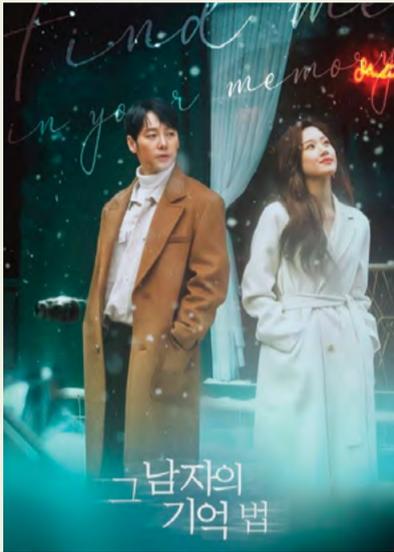
맛있는 먹거리와 못골은애어의 기분 좋은 이야기를 즐기면서 이곳만의 독특한 힐링을 체험해 보자.

글 - 진태민 수습기자 ses7809@sungkyul.ac.kr  
사진 - 수원 힐링폴링 홈페이지, 수원관광, 매일경제  
[참조] 뉴스핌, 연합뉴스TV



## 당신은 어디까지 기억하나요?

시험 기간에 우리가 자주 하는 상상이 있다. 바로 '시험 범위를 한 번만 읽어도 모두 기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헛갈리지 않고 암기한 것을 까먹지 않으면 좋겠다.'와 같은 생각이다. 우리는 단기간에 최대한의 효율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암기력이 좋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확한 기억력과 이를 바탕으로 생긴 확신은 우리의 상상처럼 무조건 이로운 것일까? 이번 392호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에 하나의 해답이 돼 줄 드라마와 영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목** 그 남자의 기억법  
**개요** ▲ 드라마  
**편성** MBC 2020.03.18. ~  
2020.05.13. 32부작  
**출연 배우** 김동욱, 문가영, 윤종훈 등

###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 망각하고 살아가는 여자

대한민국 뉴스 시청률 1위를 자랑하는 뉴스 라이브 앵커 정훈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성공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그에게 들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는데, 바로 그가 과잉 기억 증후군을 겪고 있어 보고 경험한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번 본 것을 모두 기억하는 능력은 뉴스를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는 이런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 정신과 상담까지 받을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

한편 과거 한 사건으로 인해 큰 죄책감을 얻으며 소중한 기억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하진. 그녀는 이 시대 최고의 라이징 스타로 출연하는 드라마나 광고 모두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승승장구한다. 그러다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정훈이 진행하는 뉴스 라이브에 게스트로 출연 후 정훈과의 인연이 예상치 못하게 이어진다. 처음에는 열애설을 잠재우기 위해 가짜 연애를 시작했지만, 정훈과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하진은 이 남자에게 점점 빠져드는데...

### #기억 속 또 다른 기억

인연이 깊어지며 가짜가 아닌 진짜 연애를 하게 된 정훈과 하진.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지만 정훈은 하진과 만날수록 특이한 점을 느낀다. 바로 8년 전 사고로 죽은 그의 첫사랑 서연이 가장 좋아했던 말을 하진이 똑같이 말하고, 서연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를 하진도 제일 좋아하지만 하진은 서연의 존재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남들과는 달리 모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정훈은 8년 전과 같은 아픔을 다시 겪고 싶지 않기에 하진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듯, 하진에 대한 정훈의 마음은 여전히 뜨거워 쉽사리 그녀와 멀어지지 못한다.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정훈의 친한 친구이자 주치의인 태은은 정훈에게 하진과의 인연을 정리하라는 충고를 해준다.

사건으로 인해 망각하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정훈과 슬픔으로 인해 소중한 기억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하진. 사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두 사람 사이에 얽혀 있는 비밀이 하나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태은의 조언처럼 두 사람이 겪을 고통과 절망이 커지

게 된다. 과연 두 사람은 진실을 알고 모든 기억을 찾고 난 후 온전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서로의 앞에 설 수 있을까?

기억은 절대적이지 않다. 모든 걸 기억하는 것도 괴롭고 잊고 싶지 않은 걸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힘든 일이다. 감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슬픈 기억을 잊거나 소중한 기억을 가슴속에 새기며 살고 싶은 것 역시 상대적이듯, 무언가를 기억할 때 속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러닝처럼 빠른 속도로 뛰는 것보다 조깅처럼 산책하듯 천천히 걷는 것이 오히려 다이어트 효과가 더 있다는 미국의 연구가 있다. 이는 느림에 뿌리를 두는 운동이 속도에 초점을 두는 격한 운동보다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주는 하나의 예시이다. 느림의 미학을 일에 얽매이고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은 느낄 수 없지만, 효과를 믿고 조금씩 해나가는 끈기를 가진 이들에게는 사랑보다 단 열매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니 머리에 저장하는 것과 기억하는 것이 빠르지 못하다고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우리의 몸과 마음이 기억을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



**제목** 기억의 밤  
**개요** ▲ 영화  
**개봉** 2017.11.29.  
**출연 배우** 강하늘, 김무열 등

### #익숙한 시작

진석과 그의 가족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된다. 그러나 진석은 웬지 모르게 이 집에 와본 것 같다는 친숙함을 느낀다. 신경 쇠약증을 앓고 있는 진석은 운동과 공부 모두 잘하고 성격까지 착한 형, 유석의 말을 따르며 집 정리를 마친다. 정리 후 새 집에서의 첫 저녁 식사 시간에 진석은 창고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고 소리의 이유를 가족들에게 물어본다. 그러나 가족들 모두 소리를 듣지 못했다며 오히려 집주인의 창고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전한다. 진석은 의아해하지만 궁금증을 접으며 가족의 말을 따르기로 한다.

그날 밤, 창고에서 나는 소리로 인해 잠에서 깬 진석은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유석이 낯선 사람들에게 납치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불구하고 보름이 지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유석에 가족들의 상심은 점점 커지고 진석은 매일 악몽을 꾀다. 3주 후 기적적으로 유석은 집으로 돌아오지만, 유석은 자신이 사라진 동안의 기억을 모두 잊고 있었고 수상한 행동과 함께 밤마다

낯선 장소에 혼자 가는 모습을 보인다. 형이 걱정되는 진석은 어느 날 형의 뒤를 몰래 따라가 보는데...

### #진실 혹은 착각

진석은 분명 형을 따라갔는데 눈 뜬 곳은 그의 방이다. 혹시 지난밤 형의 흔적을 쫓아간 일이 꿈인 걸까? 복잡한 마음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점점 이상한 일이 늘어만 간다. 꿈에서 봤던 위치 그대로 물건이 놓여있고, 엄마와 아빠는 나의 동생을 살핀 후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어제부터 이어지는 불편하고 의아한 이 느낌은 과연 진실일까 아니면 나의 착각인 걸까?

드디어 진실과 마주하게 된 진석.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은 환경에서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오며 자신이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기억의 재구성이 시작된다. 과연 어디까지 나의 기억을 믿어야 하고 어디까지 기억의 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그는 혼란스러운 심정으로 기억의 끝을 향해 달려간다.

확신은 긍정의 시작이자 자신감의 원천

이다. 그러나 확실하다고 믿고 기억했던 것이 거짓이자 착각이라면 우리는 큰 상실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억하는 과정이 힘들지라도, 헛갈리지 않고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기억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는다는 말이 있듯, 우리는 소중한 의미 있는 기억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조금해하기보다는 기억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그 기억으로 인해 미래에 어떤 행복한 일을 경험하게 될지 기대해 보는 건 어떨까? 앞으로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시험을 준비할 때 조바심보다는 여유를 가져보자. 이 경험은 추후 공부를 할 때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글 - 노하은 기자 dmisu7226@sungkyul.ac.kr  
사진 - 네이버 사진  
[참조] MBC, 네이버 영화

# 나가자, 밖으로! 떠나자, 해외로!

코로나19의 여파로 3년 동안 주춤했던 공항의 하늘길이 다시 열리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국경을 닫았던 국가들은 빗장을 풀고 관광객을 맞이하는 데 여념이 없다. 우리나라 역시 방역수칙을 완화하고 노선을 늘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팬데믹 이후 공항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번 호에서는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이들을 위해 달라진 공항의 모습과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다양한 항공편을 소개해 보려 한다.



## #지난 공항의 이야기

지난 6월 8일, 코로나19 사태로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이었던 인천국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 편 수 제한과 비행금지시간을 2년 2개월 만에 해제했다. 국토부는 "항공편 공급이 원활해지고 다양한 항공 스케줄도 조속히 회복될 예정으로, 휴가철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해외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 #현재 공항의 이야기

그러나 이런 상황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됐다. 지난 9월 3일, 정부가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중단하면서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정부는 10월 1일 0시부터 국내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2년 9개월 만에 해제했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 항공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10월 1일, 2일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수는 각각 7만 1,247명, 7만 1,463명을 기록했다. 하루 이용객 수가 7만 명을 넘어선 것은 여름 성수기인 지난 7월 31일 이후 두 달 만이다.

이처럼 정부는 국외 출·입국자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단 정부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옥)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인천공항 잔디광장 및 하늘정원에서 '2022 인천공항 스카이 페스티벌(SKY FESTIVAL)'을 개최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스카이 페스티벌은 전 세계 유일의 공항 복합문화 축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야외에서 재개됐다. 스카이 페스티벌은 ▲합합 콘테스트 우승팀 ▲이무진 ▲비오 ▲더 보이즈 ▲마마무 ▲이석훈 등 다양한 참가자들의 무대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나가자, 일본으로!

이렇듯 다양한 국외 제한 규칙이 폐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계획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지금 당장 떠나기 좋은 국외 여행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첫번째 여행지는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11월 1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 등 외국인에게 무비자 여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년 6개월 만에 대구와 일본을 이어주는 하늘길이 활짝 열릴 예정이다.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오는 11월 11일부터 ▲대구-오사카(간사이) ▲대구-후쿠오카 ▲대구-도쿄(나리타) 3개 국제선 노선을 데일리 운항으로 재개한다. 이번 일본발 운항 계획은 최근 일본 정부의 무비자 입국 조치 시행에 따라 이뤄졌다.

9월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10월 30일부터 인천-도쿄(나리타) 노선을 주 10회에서 12회로 늘린다. ▲인천-나고야는 주 7회에서 10회로 ▲인천-후쿠오카는 주 3회에서 4회로 증편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김포-하네다(도쿄) 노선도 증편을 계획하고 있다.

코로나19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관광객은 비자 없이 가장 90일까지 일본에 머물 수 있

## #떠나자, 대만으로!

두번째 여행지는 대만이다. 대만은 10월 13일부터 입국 후 격리 면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9월 22일 오전 주전통 대만 행정원장은 행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대만은 현재 입국 후 3일간 격리와 4일간 자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3+4제도를 시행 중이다. 격리 면제가 시행되면 7일간 자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0+7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대만은 국경 완화 1단계 조치로 10월 29일부터 주당 입국자 제한을 현행 4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하고 상호 사증 면제 제도를 복원한다. 한국 여권으로 대만 입국 시 무비자 입국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잊지 말아야 할 것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점차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 외국에선 코로나19에 대한 염려가 적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가득 찬 공항을 보면서 '이제 코로나19도 지나가고 있나'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당장 무비자와 무격리를 환영하는 사람들만 봐도 그렇다.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집안에서 격리하며 지내는 삶은 벌써 먼 나라 이야기가 돼 버렸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 시대는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코로나가 없는 삶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다. 공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이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일 것이다. 우리에게선 신경 써야 할 감염병이 하나 더 생겼고 그와 공존하는 상황을 그려 봐야 한다.

그러나 검사는 현재대로 진행됐다. 국제선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입국 전후 2회 검사를 받아야 했다. 입국 전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가 필수적이었다. 특히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경우 5만 원 안팎의 가격이라 금전적 부담 또한 적지 않았다. 만약 현지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비행기에 오를 수 없었는데, 현지 체류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은 물론이고 복귀 일정 또한 맞추지 못하게 되는 셈이었다.

국외 출장·여행자들이 겪는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절차는 한동안 지속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과 음성확인서 제출에 따른 유입 차단 효과를 고려했을 때, 입국 전 검사를 통한 감염 여부 확인은 국민과 여행객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규 노선 취항 행사도 활발히 열리고 있다. 지난 10월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32번 출구장에서는 ▲대한항공(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박요한 한국지역본부장 ▲이슈트반 새르더헤이(István Szerdahelyi) 주한 헝가리 대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부다페스트 신규 노선 취항 행사가 개최됐다.



이번 인천-부다페스트 노선에는 269석 규모의 보잉 787-9 기종이 투입됐다. 지난 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2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현지시간 오후 5시 5분에 부다페스트에 도착하며, 복편은 화요일 오후 7시 15분에 출발해 다음 날 오후 12시 5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오는 29일부터는 주 2회(월/토)로 운항을 확대해 여행객을 늘릴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여객 노선 신규 취항을 통해 유럽 노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동유럽 신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있다. 하루 입국자 5만 명 제한이 폐지되고 개인 여행도 자유롭게 허용되는 등 여행객의 발목을 잡았던 입국 규제들이 풀리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일상은 회복됐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조만간 대구-일본 하늘길에 대한 정확한 운항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모든 규제가 완화되면 대구-일본을 오갈 시 국내 입국 후 PCR검사만 받으면 돼 모객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엔화 약세도 일본 여행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25일 기준 1천 원 당 엔화 가치는 100.73 엔이다. 1달러 당 엔화 가치는 143.33엔으로 24년 만에 통화 가치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환율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금융완화를 지속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 엔화 약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현재 일본 입국 시 ▲일본 출발 전 72시간 내 검사받은 PCR 음성 확인서(만 6세 미만, 3차 접종 완료자 제외) ▲입국 전 전자 질문표 작성 ▲스마트폰 필수 소지 및 MySOS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필수적이다.

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동시에, 입국 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자가 키트 4회분을 제공한다. 입국 후 격리 및 자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장소의 기준은 1인 1실로 완화된다. 현재 격리 3일은 1인 1가구, 자가 모니터링은 1인 1실이 기준이다.

대만은 해당 조치 시행 후 약 일주일 동안 추이를 지켜본 뒤 2단계 조치로 주당 입국자 수를 15만 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입국 무격리 0+7제도 또한 염두에 두고 있다. 행정원은 추후 무비자 입국도 개방하며, 단체 관광 금지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으로 여행을 계획했던 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전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벽을 세우고, 타인을 불편해하는 일이 점차 과거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다만 이 '넘어감'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넘어감'은 일이 있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포스트 코로나를 말할 때 그들은 코로나19가 초래한 충격을 상쇄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칭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다음은 절대 코로나19가 없던 과거의 세상이 될 수 없다. 재난은 삶을 변형시키기에 재난 다음의 삶은 재난 이전의 삶과 다르다. 재난을 경험한 다음의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글 - 고은성 기자 ges0188@sungkyul.ac.kr

사진 - 연합뉴스, 노컷뉴스, 대한통운 / [참조] 연합뉴스, 정책브리핑, 한겨레, 대구일보

## 기자칼럼

## 복지 사각지대

필자는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지라는 틀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란다. 복지는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복지 혜택들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

'복지 사각지대'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는 기초 생활 수급자에 반해, 그보다 조금 나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복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계층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사전에 정의된 의미뿐만 아니라 정보 불평등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기도 한다.

지난 8월 있었던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이러한 복지 사

각지대의 실태를 보여줬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은 두 딸과 어머니가 이사를 한 뒤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힘든 생활고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다.

사실 이 세 모녀는 충분히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 수급 등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혜택과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바로 '기다리는 복지 서비스'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이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기댈 언덕이 되어 주지 못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의 안타까운 비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매번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정부에서는 제도를 개선하려 했지만, 여전히 복지 시스템의 빈틈은 메워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복지 사각지대' 관련 사건들은 많지만, 대부분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필자가 이 글을 쓴 이유도 많은 학우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에서이다.

빈곤의 절벽에서 삶을 감내하기 힘든 이들이 마지막 구호 요청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글 - 김재린 기자 cofls787@sungkyul.ac.kr

## 수습기자 칼럼

## 공감 능력, 그것은 우리의 또 다른 근육



김다운 수습기자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이루어진다. 출신 지역, 얼굴, 목소리 등 모두가 다르다. 이러한 다양성은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타인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지닌다. 또한 MZ 세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개인주의이다. 혼자 대학 생활을 하는 일명 '아웃사이다'가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자취증을 취득해 더 괜찮은 직장을 갖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경쟁 사회에서는 인간관계의 여유 보단 미래의 생존 여부가 달린 스펙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가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필자 또한 대학교에 입학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추구하기보다는 고등학교 시절 꿈꿔온 전공 공부에 집중했다. 높은 학점을 받았지만 남는 경험이 없는 허탈한 기분을 느꼈다. 고등학교 시절과는 다르게 같은 과라도 시간표가 달라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사람들과 친해질 수가 없었다.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는 대학을 멀리 간 친구들이 많아 대학을 입학한 이후로 항상 허전했다. 40명 정

도 되는 강의실에서 교재만 쳐다보고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가는 것이 일상이 됐다. 그러나 나만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어쩌다 지하철역에서 같은 과 동기를 만나도 한 번도 인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척 지나가는 것이 일상이었고 동기와 지하철에서 마주 보고 앉아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있는 작은 전자기기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종강을 하는 날에 지하철에서 생각했다. 이렇게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공부만 해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은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고.

내 삶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벌거나 맹목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결실을 맺는 것이 나의 새로운 목표다.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름 방학 동안 연합 동아리에 들어갔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좋았다. 다양한 학교,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깊은 관계를 형성하거나 대화하는 방식이 어려웠다. 사람들에게는 각자 고민이 있었고 나는 그 고민을 어떻게 공감해 줘야 하는지 고민이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장미는 어린 왕자가 자신을 배려해 주는 행동이 당연하다고 느끼고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어린 왕자는 그런 장미를 떠나가지만, 시간

이 지나 장미가 다른 존재들과 달리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다시 돌아간다. 어린 왕자는 여러 행성을 떠돌며 경험하고 장미를 이해한 것이다. 즉, 공감은 경험이 중요하다.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은 무엇이 있을까? 평범한 현대인이 단기간에 많은 경험을 할 수는 없다.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 (낙인과 혐오를 넘어 이해와 공존으로)』의 저자인 정신과 의사 나중호는 공감 능력이 근육과 같아 의지로 길러진다고 한다. 책을 읽거나 영화를 감상함으로써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독서를 통해 타인을 이해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됐다. 하지만 독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인을 알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최대한 많은 책을 읽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살아보지 않은 삶에 대해 함부로 결론을 내리거나 온전히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자세다.

글 - 김다운 수습기자 kjjg99@sungkyul.ac.kr

## 편집장 노트

## 옆에 있다는 것

본격적인 대면 학기가 시작되면서 필자는 여러 가지로 머리가 복잡했다. 갑작스레 편집장을 맡게 되면서 '계속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가?'와 '내가 잘 하고 있는가?'란 생각이 매일 밤 문득 찾아왔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년도는 일이 잘 풀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올해 2월 무지개다리를 건넌 반려견, 인간관계에서의 실패, 일에서의 잦은 실수 등은 나 자신을 계속 의심하게 했다. 결국 이 의심으로 피어난 불안정함이 주변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고민이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어려웠고, 화를 주체할 수 없어 애꿎은 화를 내기도 했다.

특정 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가 최종 책임자임에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아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 친구에게 화가 너무 났었다.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을 알았지만 쉽사리 주체가 안 됐다. 당시 친구들이 눈치를 보는 것을 알게 되자 나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 많이 자책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연달아 일이 터지자 잠수함을 타고 잠시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기도 했다.

그럼에도 곁에 아직 소중한 사람이 많다. 감정이 주체되지 못해 터졌던 어느 날, 고민을 들어주고 힘들면 멈춰도 된다는 가족들, 나의 마음을 빠르게 알아주고 본인 열사까지 보내면서(...) 몇 시간을 달래주던 소중한 친구들, 누구보다 잘 도와주며 항상 맛있는 걸 먹자는 학보사 친구들, 모두가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미안했다.

나는 예전부터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 그러므로 선택한 최선의 방법은 화를 절대 내지 않으며 무조건 참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러 일을 겪으면서 이 방법을 점차 바꿔가고 있다. 생각 정리를 하기 위해 한강으로 혼자 산책을 가기도 하고 화가 날 때 좋아하는 노래를 듣기도 한다. 또한 서운하거나 화나는 점이 있으면 회피 대신 말을 꺼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고마우면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한다. 예전에는 부끄러워 말을 전하는

것을 피하기도 했지만 소중함을 깨닫자 이 마음이 너무 커져 꼭 전하기로 다짐했다.

힘든 일이 많은 만큼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라던 친구의 말이 떠오른다. 많은 일이 있었던 만큼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제주도 크루, 대학 선후배, 동기 모두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며, 항상 나에게 긍정적인 말들과 함께 도움을 주려고 한다. 그리고 내 곁에 있어주는 가족, 친구들은 항상 좋은 사람이었으며, 이들이 나에게 많은 힘이 돼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 이들의 소중함이 익숙함에 가려져 있던 것을 알게 됐다.

당신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나도 당신에게 의지할 수 있고,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글 - 이서연 편집장 tjodus1596@sungkyul.ac.kr

주간사설

# 대학신문의 추억



김희선 교수  
영어영문학과

나의 대학시절, 대학에 갓 입학한 후 가장 새로웠던 경험 중 하나는 대학신문이 나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 받아보는 일이었다. 한 학기에 학보가 몇 번 발행되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대학신문이 발행되는 날이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학보를 하나 둘씩 손에 들고 캠퍼스 곳곳에서 펴보던 추억이 떠오른다. 신문에 난 기사를 흥미롭게 읽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대학생으로서 우리는 지적인 특권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듯하다. 재미있던 일은 대학신문이 나오

는 날이면 서로 앞다투어 학교 우체국으로 달려가 신문을 다른 대학교의 친구, 특히 이성 친구에게 보내는 게 유행이었다는 거다. 그래서 학보가 나오는 날이면 늘 학교 우체국이 붐볐다. 나 자신도 대학신문을 친구에게 부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노트 크기로 접은 신문을 다시 한번 길게 접은 후 넓은 흰 띠로 둘러주고 그곳에 주소를 쓰고 우표를 붙이면 되었다.

자신이 다니는 대학신문을 다른 대학의 이성 친구에게 보내는 일만큼 기대되었던 것은 다른 대학 친구로부터 학보를 받는 일이었다. 당시 개인 우편함이 복도 한편에 진열되어 있었는데, 신문 발간 시기가 도래하면, 자신의 우편함을 매일 찾아가 신문이 왔는지 기다리곤 했다. 대학마다 신문이 나오는 시기가 유사했는지만, 개개인의 작은 우편함의 좁은 입구마다 타 대학신문들이 줄지어 꽂혀 있는 광경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러면 서로 몇 개 대학의 신문을 받았는지 대학별 신문들을 여러 개 손에 들고 자랑하는 친구들도 많았다. 벌써 어언 40년 전의 기억이다.

요즘은 종이신문 자체를 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서너 종류 의 서로 다른 일간 신문들이 배달되곤 했는데, 이제는 신문배달원의 모습을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종이신문을 보려면 공공서나 도서관에 방문해야 가능한 일이 되었다. 비행기를 타면 종류별로 종이신문을 가져다 읽는 일이 색다른 즐거움 중 하나가 될 정도이다. 종이신문의 사라짐은 모든 신문이 전자발간되어 누구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무료 구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신문지 특유의 종이 냄새를 맡으며 한장 한 장 펼쳐보던 장면은 빛바랜 사진처럼 옛일이 되어갔다.

2022년 가을학기부터 성결대 학보의 주

간을 맡게 되었던지라, 이제야 우리대학 신문이 눈에 들어온다. 솔직히 우리대학 신문이 때 학기 3회씩 종이로 발간됨에도 눈길을 잘 주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편집장을 포함하여 8명의 기자와 3명의 수습기자들이 발로 뛰며 취재하고 정성스럽게 기사를 작성하는 우리대학 신문을 구성원으로서 잘 챙겨보지 않았던 것이 참으로 미안하다. 젊은 시절 그토록 신문 나오는 날을 기다리던 때를 떠올리며 이제부터라도 우리대학 신문을 꼼꼼히 읽고 사랑하려 한다. 앞으로 성결대 학보도 시대 흐름에 따라 종이발간 부수를 줄이고 전자발간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많은 구성원들이 기다리는 성결대 학보가 되도록 우리는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학교의 다양한 모습을 잘 담아내며, 앞으로 우리대학 역사의 소중한 일부가 될 성결대 학보에 응원을 보낸다.

교수칼럼

# 상대평가 유감



윤영훈 교수  
문화선교학과

10월 말 대학교는 중간고사 기간이다. 교수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문제를 출제하며 고민할 수밖에 없다. 결국 비비 짜서 어렵게 출제하고 만다. 상대평가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 불만 요청을 최소화하려면 그 방법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충분한 지식과 의견을 제출하면 마땅히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지만, 한국의 모든 대학교는 정해진 인원만 A학점을 받을 수 있다. 더 잔인한 것은 삼분의 일 정도의 학생은 무조건 C 이하 학점을 받아야 한다. 예외는 없다.

이 무시무시한 숫자는 학생들을 일렬로 세워 등급을 부여한다. 누구는 A, 누구는 B, 그리고 누구는 C라고 말이다. 대입의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고 보편적 교육을 시행한다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각자의 취향을 찾고 자유로운 의견과

생각을 배우는 대학 교육에 상대평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누가 이런 무자비한 학제를 만든 것일까? 누군가 절대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어쩔 수 없는 제도라고 변명하겠지만, 난 그것이 상대평가의 문제점보다 더 심각하진 않다고 확신한다.

199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던 내 기억에 이런 의무적 상대평가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유학 시절 미국에도 없었다. 다만 교수님의 성향과 과목의 특성상 학생들에게 C와 F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지만, 이는 나의 태만과 부족함의 결과였기에 큰 불만은 없었다. 그러나 현재의 상대평가는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을 살벌한 경쟁 상대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터 대학 시험에 부정행위자들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설사 있다 해도 동료에 의해 바로 고발당하기 일쑤이다.

학기 초에 대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질문이 자주 올라온다. "000교수님 수업 어때요? 혹시 '팀플'(그룹과제) 있나요?" 오늘날 대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과제가 그룹 프로젝트이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 누군가는 고생하고도 다른 팀원으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누군가는 무임승차하며 쉽게 점수를 따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차별에 찬성한다."는 말의 의미도 이런 맥락이다. 그것은 이들이 마주한 경쟁이 너무나 극심해 생겨난 시대정서인지 모른다.

유학시절 만난 한 지도교수님은 첫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나는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A학점을 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모든 학생들은 함께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학기가 진행되며 그 환호성은 곧 믿음으로 바뀌었다. 이 분은 과제에서 학생이 A 학점을 받을 때까지 다시 쓰게 했다. 결석을 하면 무거운 과제로 출석을 매우게 한다. 시험 역시 잘 못 본 사람에게 계속 재시험을 치르게 했다. 물론 이전보다 문제는 더 어려워진다. 하지만 못 따라가는 학생들에게 동료들의 도움을 주선해 줬고, 스스로 과외공부까지 해주며 격려해 주었다.

이 분은 이렇게 자신의 교육철학을 말씀한다. "학생들이 A학점을 받는 것이 의무라면 나는 선생으로서 모든 학생들을 A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본인은 이 교수님께 세 과목을 배웠다. 물론 A학점을 받았고, 참 힘겨운 과정이었다. 하지만 지금도 이 과목들의 지식과 통찰이 내 머리와 가슴에 또렷하다. 나도 언젠가 교수가 된다면 이렇게 수업해야지 다짐도 해보았

다. 그런데 웬걸! 여기서는 그럴 수 없단다. 몇 번을 학교 측에 요청해도 대답은 한결같다. 시스템이 원래 그렇다고. 도대체 그 시스템이란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나는 진정한 배움은 공동체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혼자 책 읽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러나 독서모임을 통한 토론과 나눔은 내가 혼자 얻을 수 없는 지혜와 통찰을 만나게 한다. 무엇보다 함께 하는 공부는 재미있다. 모든 사회 변화의 배후에는 독서모임이 있었던 것처럼 함께 나누는 배움의 힘은 개인을 넘어 사회로 확장된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이런 상대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이 구원의 조건을 상대평가로 걸어두신다면 우리의 현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플까 상상해보라. 다행히도 성결대학교는 이번 학기부터 상대평가 비율을 대폭 조정하였다. 교수님들의 지속적 요청이 반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나는 계속 상대평가에 대한 유감을 말할 것이다. 언젠가 내 수업의 모든 학생들이 시스템적인 경쟁 없이 서로가 서로를 배우며 정당한 학점을 받게 될 날까지, 사회의 경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대학에서 만큼은 그랬으면 좋겠다.

## 독자참여퀴즈

**Q1** 현재 일본 입국 시 일본 출발 전 72시간 내 검사 받은 PCR 음성 확인서, 입국 전 전자 질문표 작성, 스마트폰 필수 소지 및 MySOS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필수적이다.



**Q2** 수원 행리단길은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촬영지이다.



**Q3** 하잡의 유래는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진다.



**Q4** 조선어학회는 <한글>을 창간했다.



**Q5** 마스크의 폴리프로필렌 성분은 매립 시 완전 분해까지 450년의 시간이 걸리며 생태계 파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92호를 읽고 독자참여퀴즈를 풀어보자! 간단한 OX만 풀어도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준다구~

정답 제출

성결대 학보사 인스타(sku\_press) 디엠으로 과/학번/이름과 함께 제출!



# 2022 비교과 FESTA

## VI·FE에 숟가락 얹기

11-16 WED 10:00~17:00  
학술정보관 1층, XR강의실

**[ 주요 프로그램 ]**

- 학생이 운영하는 비교과 부스
- 비교과 성과공유회  
<성바사: 성결대를 바꾸는 시간 10분>  
학술정보관 1층 XR 강의실(13시 시작)
- 각종 이벤트

**[ 문의 ]**  
교육혁신지원센터 (031-467-8451, 8442)

**[ 이벤트 ]**

- 포토월 사진 촬영
- 비교과 FESTA 스티커 적립
- <성바사> 참석 및 퀴즈
- 3행시 작성

**[ 기타 ]**  
상세정보 QR코드 통해 확인

**이벤트상품**

노트북 거치대  
JBL 블루투스 스피커  
돌체구스토 지니오S  
코닥 필름카메라 세트  
춘식이 담요

상세정보 QR코드 통해 확인